

독자의견

[독자 제언] 한·일 해저터널로 일자리 창출하자

박성열·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

입력 : 2017.07.28 03:10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이 들어가는 일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지 못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경기 활성화가 기반되어야 한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도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 하나로 한·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한다.

한·일 터널은 천문학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측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건설업 13조원, 건설자재업 13조원, 도소매서비스업 4조원, 가축·화학공업 4조원, 산업용 기계산업 1조원 등 총 54조원에 이른다. 고용 유발 효과는 45만명이다. 건설업계도 2020년 기준 먹거리 산업 1순위로 한·일 터널, 2순위로 한·중 터널, 3순위로 새만금사업을 꼽고 있다.

한·일 터널은 부수 효과도 크다. 우선 동북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중·일을 아우른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일 터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의 대륙 진출 기반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가 유라시아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는 최적 기반이다. 일본인 1억2000만명이 잠재적 내수 시장에 편입되는 효과도 클 것이다. 언제까지 폐쇄적·패배적 사고에 갇혀 시대 흐름을 놓칠 건가. 한국이 수퍼 허브가 되려면 플랫폼을 장악해야 한다. 그 하나가 한·일 터널이다. 지금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새 정부의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